

축구

8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K리그1 31라운드 | 선두 전북, 대구에 0-2 뼈아픈 패배

이동국 PK 실축...또 미뤄진 300공격포인트

(K리그 개인 통산)

대구 에드가, 투입 5분만에 PK 골
전북 이동국 PK 찬스서 골대 강타
대구, 세징야 추가골로 완벽한 승리



간판 공격수의 조커운용, 디펜스 라인 조정.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31라운드를 관통한 두 가지 화두였다. 그리고 웃은 쪽은 원정팀이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선두를 질주해온 전북은 평소와 달리 스리백을 구성했다. 역시 스리백을 세운 원정 팀은 화력의 8할을 책임진 세징야-에드가를 벤치에 앉힌 채 키오프를 맞이했다.

차이가 있었다. 무게중심. 전북 스리백

프로축구 경기결과		▶ 25일	
상주	상주 2	:	3 인천
전주	전북 0	:	2 대구
상임	서울 1	:	1 경남
탄천	성남 1	:	0 강원
수원	수원 0	:	2 울산

은 공격성향이 강한 풀백들을 전진시켜 전방부터 압박한 뒤 공간을 연다는 의도, 대구는 '선 수비-후 역습' 의지가 분명했다.

전북의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은 "윙 포워드의 활동 폭을 줄여 많은 찬스를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안드레 감독(브라질)은 "체력비축과 효율

적 운영을 위한"이라고 귀띔했다.

전반 흐름은 어수선했다. 홈 팀의 공격은 단조로웠고, 대구의 역습은 결정력이 떨어졌다. 변수도 빨랐다. 전반 37분 대구 박기동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대구 벤치는 예정보다 빨리 에드가를 투입했다.

나뭇 것은 없었다. 점차 점유율을 높여던 홈 팀의 리듬이 끊기자 결과적으로 대구가 힘을 낼 수 있었다. 에드가와 투 톱을 이끈 김대원이 상대 핸드볼 파울을 유도하면서 페널티킥(PK) 찬스를 얻었다. 투입 5분 만에 에드가가 골 망을 흔들었다.

우세한 경기를 하고도 먼저 첫 골을 허용한 전북 진영이 부상해졌다. 후반 시작과 함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을 투입, 호사와 함께 투 톱을 이루도록 했다. 수비도 익숙한 포백으로 전환해 잔뜩 응크린 대

구를 더욱 압박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9분 본인이 얻은 PK를 이동국이 실축했다. 공이 골대를 때리면서 K리그 통산 300번째 공격 포인트가 다시 미뤄졌다. 1998년 프로 데뷔한 이동국은 222골·77도움을 기록 중이다.

대구 선수들이 이유가 없었다. 선 굵은 축구로 바꾼 전북의 다급함을 영리하게 이용하며 시간을 보냈다. 후반 추가시간 세징야의 골까지 터지며 원정에서 2-0 완벽한 승리를 챙겼다. "승점판리가 중요하다. 패배는 없어야 한다"던 대구는 국가대표 수문장 조원우의 선발 쇼와 함께 대어를 낚았다. 울산 현대를 따돌리고 1위를 질주하려던 전북은 이동국의 골대 저주에 아쉬움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토트넘 리그컵 32강 탈락

손흥민 선발서 빠더니 4부팀에 패배 '대망신'

(클체스터)

승부차기 1·5번 실축으로 3-4 패

토트넘이 4부리그 팀에게 털미를 잡혀 리그컵에서 탈락했다. 토트넘은 25일(한국 시간) 영국 클체스터 커뮤니티 스타디움서 펼쳐진 2019~2020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클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32강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했다.

이번 카라바오컵 최대 이변이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정상권으로 분류되는 토트넘이 4부리그 팀에게 패했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토트넘은 클체스터를 맞아 기존 라인업에서 주전을 대거 제외시켰다. 시즌 일정을 치르고 있는 주축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차원이었다. 손흥민을 비롯해 크리스티앙 에릭센, 에릭 라펠라 등은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불을 소유했지만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델레 알리, 루카스 모우라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트넘은 초조해졌다. 결국 후반 20분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과 에릭센을 동시에 교체 출전시켰다. 손흥민은 후반 30분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 골을 원했던 포체티노 감독의 기대와는 달리 무득점 양상이 이어졌다. 클체스터는 완전히 수비 중심으로 라인을 내려서서 토트넘의 공세를 견뎌냈다.

전·후반 90분 동안 한골도 뽑아내지 못한 토트넘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토트넘은 1번 키커로 나선 에릭센과 마지막 키커(5번) 모우라가 실축하면서 3-4로 패했다. 손흥민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넣었지만 팀 패배를 되돌릴 순 없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체스터가 좋은 경기를 했다. 우리는 90분 동안 득점하지 못해 실망스럽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며 "이 대회의 매력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길 원했지만 탈락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날 경기 이전까지 2013년 사우샘프턴 감독 부임 이래 18번의 하부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포체티노 감독이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김인성·주니오 연속골 울산, 전북과 승점 타이

울산, 수원에 2-0...다득점 뒤진 2위

울산 현대가 수원 삼성을 꺾고, 선두 탈환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울산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19' 31라운드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김인성과 주니오의 연속골로 2-0으로 웃었다. 최근 3경기 만에 1승을 추가한 울산은 18승9무3패(승점63)로 같은 날 대구FC에게 0-2로 밀격을 당한 리그 1위 전북 현대(18승9무3패)와 동률을 이뤘다. 시즌 다 득점에서 밀려 2위를 유지했지만 승점 차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큰 소득을 챙겼다. 전북은 시즌 61골, 울산은 60골을 넣고 있다.

이날 경기는 울산과 수원에게 모두 중요했다. 울산은 선두 추격과 최근 2연속 무승부를 마감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수원은 전날(24일) 포항 스틸러스에게 6위 자리를 내줘 승점 3을 획득해 상위스플릿(1~6위) 마지막인 6위로의 복귀를 꿈꿨다. 수원은 최근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타가트의 몸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교체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총력전으로 나섰다.

수원은 볼 점유율에서 원정팀에게 밀렸지만 양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김민우와 염기훈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성공했다. 그 덕분에 수원은 전반에 9개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공격이 잘 풀렸다. 하지만 마무리에 실패하면



울산 현대의 김인성이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원정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맞아 후반 4분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은 팀동료 믹스. 2-0으로 승리한 울산은 선두 전북 현대에 승점차 없이 다득점에서 뒤진 2위가 됐다. 수원 |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서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울산이 전반에 기록한 슈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윤영선이 기록한 헤딩슛 1개가 유일했다.

후반전 내용도 비슷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울산의 몫이었다. 울산은 전반 4분 만에 김인성이 김태환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슬러

이랑하며 오른발로 쏘는 수원의 골문을 열었다. 이후 울산이 흐름을 타는 듯 했지만 수원은 이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실점 후 타가트를 투입한 수원은 볼 점유율까지 대거 끌어올리면서 계속 울산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국가대표 수문장 김승규가 버티는 울산의 골문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후반

한 때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하던 타가트가 넘어졌고, 심판이 비디오판독 시스템인 VAR을 가동했지만 페널티킥은 주어지지 않았다. 경기 막판 애매한 상황에서 주니오의 추가골이 터졌다. 부심은 깃발을 들었지만 주심이 VAR을 통해 골을 인정하며 판정을 정정했다. 수원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장기플랜으로 여자축구 저변확대 힘써야"

'여자축구 심포지엄' 위기 극복 논의

어릴 때부터 공 접하도록 환경 조성 협회-연맹 협력·A매치 확대 의견도

한국 여자축구는 위기다. 2019프랑스여자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했다고 해서 나온 평가가 아니다. 국내 시스템 전반에 고품질이 들린다. 축구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선수 및 팀 수 감소, 그리고 장기 플랜 부재 등이 부진한 국제경기 성적과 맞물리면서 위기의식은 고조됐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KFA)는 2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자축구 심포지엄'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여

자축구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100여명의 축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변확대를 통한 발전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경쟁을 통한 경기력 강화 등 3가지 주제를 다뤘다.

저변확대는 가장 절실한 주제였다.

유·청소년기에 축구를 1순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안에 대해 이재성 동국대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의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미래 교사가 될 분들이 축구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부모들이 딸들이 축구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부장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학교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자축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4~6세의 어린 나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공을 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플랜과 함께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의 협조를 지적했다.

성문정 연구위원은 "여자축구는 계획하는 주체와 실행하는 주체의 구조가 다르

다"면서 "4년 단위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시 연동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재성 교수는 "연맹의 인적 구성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 축구협회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심상보 부장은 "연맹이 독립적인 예산이 없는 게 문제다. 두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언 보은 상무축구단 감독은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계획을 공유하는 게 미흡했다. 또 그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서도 많은 건의가 나왔다.

대표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13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전가을(화천 KSP)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A매치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저변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미언 감독은 "A대표팀 뿐 만 아니라 B대표팀도 구성해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